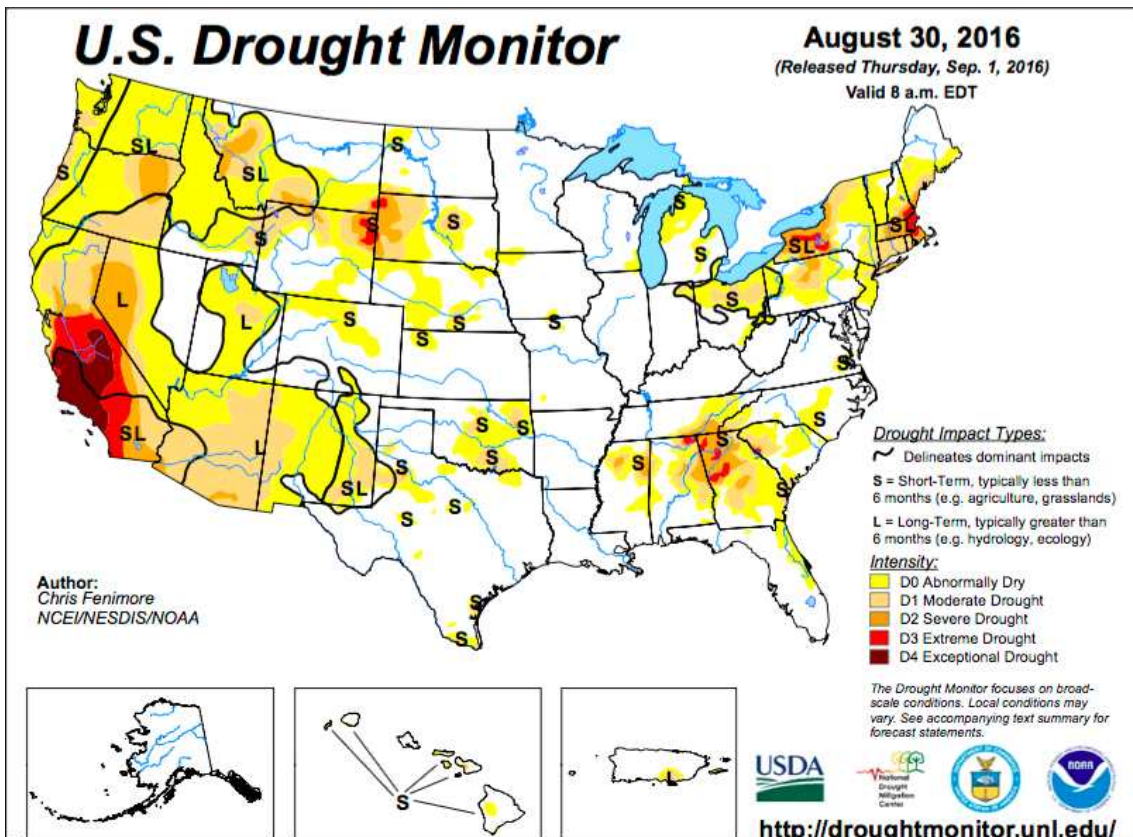


9월 7일 USDA 기후작황보고서(Volume 103, No. 36)

□ 미국 기후 현황(8/28~9/3)

플로리다에서는 1급 허리케인 Mermine의 영향으로 9월 2일 산사태가 일어나고, 최대 풍속이 80mph에 달하는 강풍이 불어 닥쳤다. 이후 플로리다에서부터 버지니아 남동부에 이르는 지역에서도 40~60mph 정도의 강풍이 불고, 4~8인치 이상의 많은 비가 내려 곳곳에서 크고 작은 피해가 발생했다. 이번 허리케인으로 인한 피해는 아직 집계되지 않았지만, 남동부에서는 면화 송이가 형성된 지역의 비율이 버지니아의 경우 18%, 조지아의 경우 49%에 이르고, 면화 송이가 갑작스러운 날씨 변화에 취약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상당한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허리케인에 의한 간접적인 영향으로 중부와 남부 평원에서조차 비가 내렸다. 캘리포니아, 북부 평원 및 남동부 내륙 지역에서는 대체적으로 따뜻하고 맑은 날씨를 보인 가운데 농작업이 활발하게 진행되었다. 북부 평원 지역에서는 지난 한 주간 평균 기온이 평년에 비해 10°F 정도 높은 날이 이어졌고, 겉프 만 연안 중부지역에서부터 뉴 잉글랜드 남부에서도 평년보다 기온이 5°F 정도 높았다. 플로리다 남부, 로키산맥 남부 및 태평양 연안 북서부 지역에서는 기온이 평년에 비해 다소 낮은 날이 이어졌다.



□ 농업 현황 요약(8/29~9/4)

미시시피강 상류 일대에서는 기온이 평년에 비해 8°F 정도 높았고, 수확작업이 활발하게 진행되었다. 이와 대조적으로, 남부 대평원 일대와 태평양 연안 북서부 일대에서는 기온이 평년에 비해 낮은 날이 이어졌다. 지난 주 후반에는 허리케인 Hermine의 영향으로 남부 대서양 연안 일대에서는 많은 양의 비가 내리고 강한 바람이 불었다. 중부에서는 산발적으로 비가 내렸는데, 비는 주로 텍사스와 캔자스 일부 지역에 집중되었다. 로키산맥 서부 일대에서는 비가 전혀 내리지 않았다.

■ 옥수수

9월 4일 기준, 전체 재배지의 96%에 이르는 지역이 dough 단계에 접어든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약간 앞서는 수치이고, 직전 5년 평균에 비해서도 2%p 앞선 수치이다. 한편, 같은 기준 denting이 시작된 지역의 비율은 76%인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했을 때는 5%p 앞서고, 직전 5년 평균과 비교했을 때에도 7%p 앞서는 수치이다. 응답자의 74%가 생육상황이 좋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지난주에 비해 약간 낮은 수치이고,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했을 때에는 6%p 높은 수준이다.

■ 대두

지난 9월 4일 기준, 꼬투리가 형성된 지역의 비율은 97%였으며,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서는 2%p 앞서지만, 직전 5년 평균과 비교했을 때에는 비슷한 수치다. 꼬투리가 생긴 지역의 비율은 최소 90%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파리가 떨어지기 시작한 지역의 비율은 12%으로,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했을 때는 3%p 낮지만 직전 5년 평균과 비교했을 때에는 비슷한 수준이다. 응답자의 73%가 생육상황이 좋다고 응답했으며, 이는 지난주와 비슷한 수치이며,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했을 때에는 10%p 높은 수준이다.

■ 면화

9월 4일 기준, 전국적으로 면화송이가 벌어진 지역의 비율은 33%로,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했을 때는 5%p 앞서고, 직전 5년 평균과 비교했을 때에는 비슷한 수준이다. 텍사스의 수확작업은 다소 지연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현재까지의 수확률은 7%이다. 전체 응답자의 48%가 생육상황이 좋다고 응답했으며, 이는 지난주와 비교했을 때에는 같은 수치이고,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했을 때에는 5%p 낮은 수준이다.

■ 쌀

9월 4일 기준, 전체 수확률은 35%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서는 3%p 높고, 직전 5년 평균에 비해서도 약간 높은 수치이다. 알칸사스에서는 지난 한 주간 수확률이 19%p 증가했고, 미시시피에서도 수확률이 18%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응답자의 58%가 생육상황이 좋다고 응답했는데, 이는 지난주에 비해서는 2%p 낮은 수치이고,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했을 때에도 7%p 낮은 수준이다.



□ 세계 기후 현황(8/28~9/3)

■ 유럽: 대체적으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면서 여름작물의 수확작업 등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스페인, 프랑스, 폴란드, 이탈리아 등에서는 맑은 날씨가 이어진 가운데 기온도 평년에 비해 2~4°C 정도 높은 날씨가 이어지면서 옥수수, 대두, 해바라기 등의 수확작업이 차질 없이 진행되었다. 한편, 프랑스와 독일 등에서도 겨울작물의 파종작업이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스페인, 프랑스 및 독일 북부 일부 지역에서는 지난 60일 간 평년에 비해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면서 겨울작물의 발아가 늦어지고 있다. 보다 북부의 잉글랜드 동남부 등에서는 맑은 날씨를 보였고, 영국과 아일랜드 등에서는 10~40mm 내외의 비가 내렸다.

■ 구소련(서부): 대체적으로 맑은 날씨가 이어진 덕분에 여름작물의 수확작업이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벨라루스, 러시아 중부와 남부 등에서는 10~50mm 내외의 소나기가 내려 수확작업이 일시적으로 중단되기도 했지만, 이로 인한 피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몰도바, 우크라이나, 러시아 등에서는 기온이 평년에 비해 2~5°C 정도 높은 가운데 맑은 날씨가 이어져 옥수수, 대두, 해바라기 등의 수확작업이 상당한 진전을 보였다. 우크라이나, 러시아 남부에서는 겨울밀의 파종작업도 활발하게 진행되었다.

■ 동아시아: 태풍 Lionrock이 8월 30일 일본 북부 해안에 상륙했다. 상륙과 동시에 세력이 급속히 약해기지는 했지만 일본 전역을 비롯해 한국과 중국 북동부 지역에 50~100mm 내외의 비를 뿌렸다. 주 후반에는 태풍 Namtheun이 한반도와 일본 사이로 접근해 오면서 일본 남부와 한국 남동부에 200mm 이상의 폭우가 쏟아졌다. 중국 북동부 지역에서는 태풍 Lionrock의 영향으로 가뭄이 이어지고 있던 Heilongjiang, 내몽고 및 Jilin 등에 25~50mm 내외의 비가 내렸다. 예서는 비가 거의 내리지 않았고, 그 밖의 북동부 지역에서는 10~25mm 내외의 비가 내렸다. 하지만, 이번 비는 가뭄을 어느 정도 해소해 주기는 했지만 때늦은 감이 있으며, 수확량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 호주: 남부와 동부에서는 10~50mm 내외의 꽤 많은 양의 비가 내렸다. 이번 비는 보리, 캐놀라, 밀 등을 비롯한 겨울작물 재배지 전역에 내렸고, 일부 지역에서는 침수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되기도 했지만 대체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그 밖의 서호주 지역 등에서도 5~25mm 내외의 비가 내렸다. 서부 지역에서는 기온이 평년 수준을 유지했으며, 남부와 동부에서는 기온이 평년에 비해 1°C 정도 높았다.

■ 아르헨티나: 중부 전역에서는 맑은 날씨가 이어져 옥수수 수확작업에 박차를 가할 수 있었다. Buenos Aires, La Pampa 및 Cordoba 등에서는 5~50mm 내외의 비가 내렸고, 이번 비는 주 후반으로 가면서 북동부의 Santa Fe, Entre Rio 등으로 확대되었다. 북부 일부 지역에서는 10~50mm 내외의 비가 내려 면화 수확작업 등의 농작업이 다소 지연되기도 했다. Cordoba에서는 기온이 평년에 비해 1~3°C 정도 낮았고, 일부 지역에서는 밤사이 기온이 영하 5°C까지 내려가는 등 영하권의 날씨를 보이기도 했다. 아르헨티나 농림부에

따르면, 9월 1일 기준 옥수수의 수확률은 94%로, 지난 해 같은 기간의 98%에 비해 다소 느린 편이다.

■ 브라질: Rio Grande do Sul 북부에서부터 Mato Grosso do Sul 동부 및 Sao Paulo 서부에서는 50mm 이상의 비가 내렸다. Parana 주정부 보고서에 따르면 8월 29일 기준 filling 단계에 도달한 밀 재배지는 전체 재배지의 64%인 것으로 나타났고, Rio Grande do Sul에서 파종된 이모작 작물의 발아율은 9월 1일 기준 78%인 것으로 나타났다. Sao Paulo 서부에서도 10~25mm 내외의 비가 내려 사탕수수의 수확작업이 다소 지연되었고, Minas Gerais에서는 맑은 날씨 덕분에 커피의 수확작업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Mato Grosso 서부와 남부에서도 이례적으로 비가 내렸고, 강우량은 10~50mm 내외였다. 이 지역에서는 낮 최고기온이 35°C까지 오르는 더운 날씨가 이어지고 있지만, 옥수수 파종작업이 곧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